

보도자료

한국 금융기관 2021년 탈석탄 정책 성적표... '선언만 있고 정책은 부실'

기후솔루션, 국내 100대 금융기관 2021년 기후변화 정책 평가 보고서 발간
실효성 있는 정책 부재...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는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상이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정책을 분석한 결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응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은 4일 발간한 '국내 100대 금융기관 기후변화 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대다수 금융기관이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앞다퉈 선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는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비교해, 매우 뒤처졌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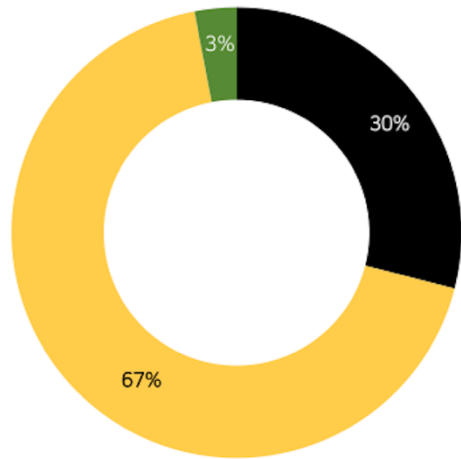
100개 중 97개 금융기관, 실효성 있는 탈석탄 정책 부재

지난 2021년, '탈석탄 선언' 바람이 불었다.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5월 서울에서 열린 P4G 정상회의를 앞두고서는 민간 금융권에서 탈석탄 선언이 연이어 나왔다.

그러나 '선언' 뒤 '행동'은 뒤따르지 않았다. 기후솔루션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금융기관 100개 중 탈석탄 선언을 한 기관은 70개이고, 이들 중 67개 기관은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 정책만 수립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신규로 추진되는 석탄발전 사업이 전 세계 기후대응 기조에 따라 사실상 전무한 현재, 실효성 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정책만 세운 것이다. 기후솔루션의 한수연 연구원은 "신규 석탄발전 사업 투자 중단 정책만으로는 투자 실무에 있어 탈석탄 선언 전후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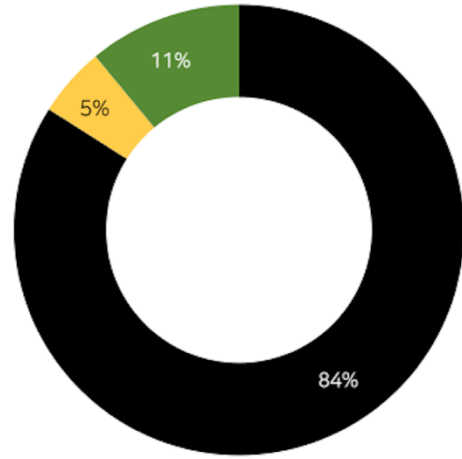
금융기관들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실효성은?

탈석탄 관련 정책, 제대로 세웠을까?



- 탈석탄 선언 안 함
- 탈석탄 선언했지만,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 정책만 수립
- 탈석탄 선언하고,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 이외 정책도 수립

자산 포트폴리오 2050 탄소중립 정책, 제대로 세웠을까?



- 2050 탄소중립 정책 없음
- 2050 탄소중립 정책 있지만, 구체적 계획 없음
- 2050 탄소중립 정책과 구체적 계획 있음

탈석탄 선언이 '보여주기식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탈석탄 기준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독일의 비영리 기관인 우르게발트(Urgewald)가 마련했다. 우르게발트는 (1)석탄 산업의 범위 (2)석탄 기업의 범위 (3)투자 배제 범위 등 3가지 기준을 필수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후솔루션은 평가 대상인 100개 기관 중 이 3개 요소를 포함한 탈석탄 정책을 세운 기관은 SC제일은행, 삼성화재, 미래에셋증권 등 3개 기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자산 포트폴리오의 2050년 탄소중립 정책을 세운 기관은 100개 중 16개에 그쳤다. 이 중 구체적인 탄소 감축 계획을 제시한 곳은 스탠다드차타드 그룹(SC그룹)·신한금융지주·KB금융지주 산하 금융기관 11개로 조사됐다. 신한금융그룹은 2030년까지 자산 포트폴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38.6%, KB금융그룹은 33.3% 감축하겠다는 방침이다. SC그룹은 발전, 철강 등 특정 산업에 대한 탄소집약도 감축 목표만을 제시한 상태다.

'석탄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금융제공에서 배제하고 있는 기관은 삼성화재와 SC제일은행, 미래에셋증권 등 3개 기관에 불과했다. 이 기관들은 다른 곳과 비교해 한 걸음 나아간 탈석탄 정책을 수립했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모회사인 SC그룹의 기후변화 정책을 그대로 따르는 SC제일은행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 매출 의존도가 5% 이상인 기업은 고객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그러나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배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석탄에 관해 발전(30% 이상) 및 채굴(25% 이상) 매출 기준을 설정하고 나아가 석유·천연가스 사업도 "유의영역"으로 설정해 거래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혀 한 걸음 나아간 탈석탄 정책을 수립했지만,

투자 여부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주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됐다.

정책금융기관과 연기금 등 공적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정책은 민간 영역보다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포트폴리오상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거나 구체적인 탄소 감축 계획을 수립한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900조 원이 넘는 기금 적립금으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공단의 기후변화 정책 역시 유명무실한 상태다. 국민연금은 지난 5월 탈석탄 선언을 했지만,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를 제한한다는 방침만 수립했을 뿐, 반 년 넘게 구체적인 탈석탄 투자 기준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 선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재무적, 환경적 위험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금융권 안팎에서 형성됐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탈석탄 기준을 투자에 적용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포함한 화석연료 전체에 대한 투자 제한인 '탈화석연료' 방침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유럽 주요국, 미국, 캐나다 등 34개 나라와 5개 금융기구가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 금융을 중단하겠다는 선언문을 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간 영역에서는 프랑스 보험그룹인 악사(AXA)가 대표적이다. 악사는 전체 매출 중 석탄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30% 이상인 기업을 '석탄 기업'으로 규정해, 이 기업들에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내에서는 석탄 투자를 모두 회수하고, 2040년까지는 이외 국가들에서도 석탄 투자를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사한 투자 제한 정책을 가진 네덜란드 공적연금운용공사(APG)와 영국의 국가퇴직연금신탁(NEST)은 실제로 2021년 석탄발전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주식을 전량 매각한 바 있다. APG는 석유와 가스 생산 업체도 투자 대상에서 배제했다.

한수연 연구원은 "K-대중문화는 세계를 선도하는데 K-금융의 기후변화 정책은 낙제점 수준"이라면서 "2022년에는 한국 금융기관들도 실효성 있는 탈석탄 정책, 나아가 화석연료 전반에 대한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후솔루션은 '한국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금융기관 부문별 데이터 상세

(1) 은행 - 13개

기관명	탈석탄 선언	신규석탄발전 투자 중단	석탄관련산업 투자 중단	석탄기업 배제 기준	포트폴리오 2050 넷제로	포트폴리오 감축 계획
SC제일은행	○	PF, 채권	○	(○)	○	○
신한은행	○	PF, 채권	X	X	○	2030년 38.6% 감축
KB국민은행	○	PF, 채권	X	X	○	2030년 33.3% 감축
우리은행	○	PF, 채권	X	X	○	X
하나은행	○	PF, 채권	X	X	X	X
광주은행	○	PF, 채권	X	X	X	X
제주은행	○	PF, 채권	X	X	X	X
BNK부산은행	○	PF, 채권	X	X	X	X
BNK경남은행	○	PF, 채권	X	X	X	X
NH농협은행	○	PF, 채권	X	X	X	X
전북은행	○	PF, 채권	X	X	X	X
DGB대구은행	○	PF, 채권	X	X	X	X
수협은행	X	X	X	X	X	X

(2) 자산운용사 - 27개

기관명	탈석탄 선언	신규석탄발전 투자 중단	석탄관련산업 투자 중단	석탄기업 배제 기준	포트폴리오 2050 넷제로	포트폴리오 감축 계획
신한자산운용	○	PF, 채권	X	X	○	2030년 38.6% 감축
KB자산운용	○	PF, 채권	X	X	○	2030년 33.3% 감축
우리자산운용	○	PF, 채권	X	X	○	X
우리PE자산운용	○	PF, 채권	X	X	○	X
우리글로벌자산운용	○	PF, 채권	X	X	○	X
BNK자산운용	○	PF, 채권	X	X	X	X
브이아이자산운용	○	PF, 채권	X	X	X	X
삼성액티브자산운용	○	PF, 채권	X	X	X	X
NH-Amundi자산운용	○	PF, 채권	X	X	X	X
삼성자산운용	○	PF, 채권	X	X	X	X
교보약사자산운용	○	PF, 채권	X	X	X	X
한화자산운용	○	PF, 채권	X	X	X	X
DGB자산운용	○	PF, 채권	X	X	X	X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	PF, 채권	X	X	X	X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PF, 채권	X	X	X	X
하나UBS자산운용	○	(PF, 채권)	X	X	X	X
흥국자산운용	X	X	X	X	X	X
IBK자산운용	X	X	X	X	X	X
이지스자산운용	X	X	X	X	X	X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X	X	X	X	X	X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X	X	X	X	X	X
키움투자자산운용	X	X	X	X	X	X
미래에셋자산운용	X	X	X	X	X	X
베어링자산운용	X	X	X	X	X	X
하이자산운용	X	X	X	X	X	X
트러스트자산운용	X	X	X	X	X	X
KTB자산운용	X	X	X	X	X	X

(3) 증권사 - 21개

기관명	탈석탄 선언	신규석탄발전 투자 중단	석탄관련산업 투자 중단	석탄기업 배제 기준	포트폴리오 2050 넷제로	포트폴리오 감축 계획
미래에셋증권	○	PF, 채권	(O)	(O)	X	X
신한금융투자	○	PF, 채권	X	X	○	2030년 38.6% 감축
KB증권	○	PF, 채권	X	X	○	2030년 33.3% 감축
삼성증권	○	PF, 채권	X	X	X	X
교보증권	○	PF, 채권	X	X	X	X
SK증권	○	PF, 채권	X	X	X	X
하이투자증권	○	PF, 채권	X	X	X	X
NH투자증권	○	PF, 채권	X	X	X	X
한화투자증권	○	PF, 채권	X	X	X	X
BNK투자증권	○	PF, 채권	X	X	X	X
하나금융투자	○	PF, 채권	X	X	X	X
한국투자증권	○	X	X	X	X	X
키움증권	X	X	X	X	X	X
대신증권	X	X	X	X	X	X
유안타증권	X	X	X	X	X	X
현대차증권	X	X	X	X	X	X
신영증권	X	X	X	X	X	X
유진투자증권	X	X	X	X	X	X
DB금융투자	X	X	X	X	X	X
이베스트투자증권	X	X	X	X	X	X
메리츠증권	X	X	X	X	X	X

(4) 생명보험사 - 14개

기관명	탈석탄 선언	신규석탄발전 투자 중단	석탄관련산업 투자 중단	석탄기업 배제 기준	포트폴리오 2050 넷제로	포트폴리오 감축 계획
신한라이프	○	PF, 채권	X	X	○	2030년 38.6% 감축
KB생명보험	○	PF, 채권	X	X	○	2030년 33.3% 감축
푸르덴셜생명	○	PF, 채권	X	X	○	2030년 33.3% 감축
하나생명	○	PF, 채권	X	X	X	X
DGB생명	○	PF, 채권	X	X	X	X
교보생명	○	PF, 채권	X	X	X	X
NH농협생명	○	PF, 채권	X	X	X	X
삼성생명	○	PF, 채권	X	X	X	X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	PF, 채권	X	X	X	X
한화생명	○	PF, 채권	X	X	X	X
동양생명보험	X	X	X	X	X	X
흥국생명	X	X	X	X	X	X
미래에셋생명보험	X	X	X	X	X	X
KDB생명보험	X	X	X	X	X	X

(5) 손해보험사 - 11개

기관명	탈석탄 선언	건설보험 중단	운영보험 중단	신규석탄발전 투자 중단	석탄관련산업 투자 중단	석탄기업 배제 기준	포트폴리오 2050 넷제로	포트폴리오 감축 계획
삼성화재	○	○	○	PF, 채권	(○)	매출 기준 ≥ 30%	X	X
KB손해보험	○	○	○	PF, 채권	X	X	○	2030년 33.3% 감축
한화손해보험	○	○	○	PF, 채권	X	X	X	X
하나손해보험	○	○	○	PF, 채권	X	X	X	X
DB손해보험	○	○	○	PF, 채권	X	X	X	X
흥국화재	○	○	○	PF, 채권	X	X	X	X
현대해상화재보험	○	○	○	PF, 채권	X	X	X	X
롯데손해보험	○	○	○	X	X	X	X	X
NH농협손해보험	○	○	X	PF, 채권	X	X	X	X
캐롯손해보험	○	X	X	PF, 채권	X	X	X	X
메리츠화재	X	X	X	X	X	X	X	X

(6) 정책금융기관 · 연기금 · 공제회 - 14개

기관명	탈석탄 선언	신규석탄발전 투자 중단	석탄관련산업 투자 중단	석탄기업 배제 기준	포트폴리오 2050 넷제로	포트폴리오 감축 계획
한국교직원공제회	○	PF, 채권	X	X	X	X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PF, 채권	X	X	X	X
공무원연금공단	○	PF, 채권	X	X	X	X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PF, 채권	X	X	X	X
한국무역보험공사	○	보증	X	X	X	X
중소기업은행	○	PF, 채권	X	X	X	X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PF, 채권	X	X	X	X
한국수출입은행	○	PF, 채권	X	X	X	X
한국산업은행	(○)	(PF, 채권)	X	X	X	X
국민연금공단	○	PF	X	X	X	X
신용보증기금	X	X	X	X	X	X
과학기술인공제회	X	X	X	X	X	X
새마을금고중앙회	X	X	X	X	X	X
기술보증기금	X	X	X	X	X	X

기후솔루션 커뮤니케이션 담당 김원상, wonsang.kim@fourclimate.org, 010-2944-2943

보도자료는 홈페이지(<http://www.fourclimate.org>) 뉴스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